

아스카(飛鳥宮跡)궁적 [다카이치군(高市郡) 아스카촌 오카·아스카]

아스카궁적은 아스카(明日香)촌 오카(岡), 아스카(飛鳥)에 있는 궁전유적이다. 예로부터 아스카이타부키노미야(飛鳥板蓋宮)의 전승지라고 이야기되어 왔는데 소화 34년(1959)에 발굴조사가 시작되었고 나라현립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평성 28년(2016)도까지 약 180차에 이르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복수의 궁이 중복하는 궁전유구인 것이 확인되었지만 조사 당초에 궁호(宮号)를 특정할 수 없었던 점과 경역(京城)이 존재한다고 상정되었기 때문에 조사명을 편의적으로 「아스카(飛鳥京跡)경적」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조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적명은 이 일체가 아스카이타부키노미야(飛鳥板蓋宮)의 전승지였던 점 때문에 덴(伝) 아스카이타부키노미야, 아스카이타부키노미야 전승지로 되어 왔지만 발굴조사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사적지정지도 포함시켜 아스카궁적으로 불리고 있다.

확인된 유구는 조영 순서에 따라 I기, II기, III기로 구분되고 있고 출토된 목간의 기술이나 토기의 연대를 보면 I기가 조메이(舒明) 천황의 아스카오카모토미야(飛鳥岡本宮), II기가 고교쿠(皇極) 천황의 아스카이타부키노미야(飛鳥板蓋宮), III기가 사이메이(斉明) 천황의 노치노아스카(後飛鳥) 오카모토미야(岡本宮)와 덴무(天武)·지도(持統) 천황의 아스카기요미하라미야(飛鳥淨御原宮)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건물은 모두 굴립주 건물이고 기와지붕 건물은 아니다.

I기 유구는 북쪽에서 서쪽으로 20도 정도 기울어진 유구군이다. 상층의 유구를 보존하기 위해 한정된 범위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모습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담의 기둥구멍에는 숯이나 소토(燒土)가 섞여있기 때문에 화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II기 유구는 조영 방위가 남북을 향하고 I기 유구를 덮는 형태로 토기 조성을 한 다음 그 위에 조영되었다. 전체모습은 알 수 없지만 중추부를 에워싼 것으로 상정되는 구획담(区画塀) 등이 확인되었다.

III기 유구는 최상층 궁전유구이고 궁전 중추부의 내곽(內郭)과 그 동남쪽에 만들어진 에비노코곽(エビノコ郭; ‘에비노코’는 곽이 확인된 장소의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그것 주위에 있는 외곽(外郭)으로 불리는 세 개의 구획으로 구성되고 외곽과 에비노코곽은 내곽보다도 늦게 조영되었다. 내곽은 남북 약197m, 동서 152~158m의 방형구획이고 동서담에서부터 사적 공간의 북쪽 구획과 궁적 공간의 남쪽구획으로 나뉜다. 북쪽구획에는 같은 규모의 대형건물 [정전(正殿)]이 남북으로 나란히 서 있고 동서쪽으로는 복도로 연결되는 소형건물이 있다. 에비노코곽은 통나무로 만든 담으로 둘러싸인 일곽이고 서쪽에 내곽 남문과 같은 규모의 문이 설치돼 있다. 이 문을 들어가면 정면에는 아스카궁적에서 최대급의 정전(正殿)이 서 있다. 내곽은 천황이 일상생활을 보내는 거처를 포함한 일곽이고 에비노코곽은 덴무초(天武朝)에 만들어진 「대극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